

동아시아研 연속강좌 ‘역사 속의 젊은 그들’

“국제정치 새 암호 ‘복합’ 21세기 풀어나갈 열쇠”

하영선 교수 강의 요약

국제정치학자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중) 연속강좌 ‘역사 속의 젊은 그들’(3월 3일부터 29일까지 총 8회, 매주 월·수 오후 6시)이 29일로 막을 내렸다. 동북아역사재단·조선일보 후원으로 지난 24일과 29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대회의실에서 열린 7·8회 강좌의 주제는 광복 이후 우리 시각의 국제정치학을 정립한 이용희 박사와 21세기 다층적 국제질서의 암호를 풀어나갈 신세대 복합파를 다룬 내용이었다. 하 교수가 직접 정리한 강좌 요지를 소개한다.

東洲 이용희 “그것이 그런 것 같지 않다”

동주(東洲) 이용희(李用熙·1917~1997)의 국제정치학은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반세기 전에 태어난 그의 저서 ‘일반국제정치학(상)’(1962)은 한국 국제정치학의 고전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해방 이후 척박한 지적 풍토에서 동주 국제정치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정곡을 찌르는 문제의식과 공간적으로 넓고 시간적으로 긴 안목에서 제시한 현답(賢答) 때문이었다.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돼 한국전쟁을 겪은 한반도는 전쟁과 빈곤의 악몽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다. 동주는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서양 제국에 비해서 “우리 겨레는 왜 이렇게도 취약하나”는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그것이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을 주목하는 ‘장소의 논리’에 기반을 둔 동주 국제정치학은 일반정치학의 웃을 입고 있는 서양 정치학도 사실은 특수정치학이며 따라서 일반 국제정치학은 권역(圈域)과 전파(傳播)의 시각에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정치’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유교권, 이슬람권, 기독교권에 따라 달랐으며, 근대에 들어서서 서양 국가들이 근대 국제체제를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세계로 전파시키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저항·순응·복합의 국제정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한국도 19세기 중반 이래 뒤늦게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함으로써 비극적 역사를 맞이했다.



동주 이용희

“서양 정치학 공부한다고 전쟁·빈곤 악몽 못 벗어나”
시·공간 특수성 주목한
‘동주 국제정치학’ 넓은 안목
4대 최강국에 둘러싸인 한국
‘네트워크력’ 최대한 키워야

동주 국제정치학은 구미(歐美) 국제정치학에 비해 훨씬 앞서서 세계 질서의 미래를 날카롭게 전망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동주는 ‘미래의 세계정치’(1994)에서 유럽연합을 단일민족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21세기 세계정치의 선행모델로서 주목하면서도, 뒤늦게 유럽의 단일민족주의를 받아들이는 동아시아가 유럽의 새 모델을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대의 속제인 통일을 아직 해야 하는 한반도, 공생보다는 경쟁의 길을 우선하는 동아시아, 새롭게 등장하는 복합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이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항민족주의와 부분별한 국제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는 미래지향의 ‘진전민족주의’ 추진을 강조했다. 21세기에 오히려 생명력이 강화되고 있는 동주 국제정치학은 이론과 현실의 양면에서 본격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복합파의 암호(暗號) 풀기

1991년 소련의 해체는 단순한 냉전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았다. 찾아온 것은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번영의 세기가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와 경제위기의 세기였다. 새로운 변화는 진행 중이다. 세계질서 무대에는 미국 중심의 단극(單極)론자나 미국 이외 국가들의 부상에 주목하는 다극(多極)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훨씬 많은 주인공들이 복격거리고 있다. 무대도 단층무대에서 3층 무대로 바뀌고 있다.

냉전 이후 무대의 변화는 개별국가들이 국가이익을 위해 부국강병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기존 안목에서는 대충관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탈근대 세계질서의 혁명적 변화가 찾아왔다고 흥분하기에 근대 국제질서는 여전히 노의장을 자랑하고 있다. 혼란과 질서의 중개자 ‘복합’이라는 새로운 암호가 등장했다. 이를 풀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복잡계연구가 사회·경제·국제정치를 새롭게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국제정치의 암호를 풀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21세기 한국이 겪고 있는 세계질서 암호 풀기는 문제의 난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남들은 다 졸업한 냉전질서를 아직 못 벗어난 채 남북한 긴장관계를 살면서 동시에 19세기에 필적할만한 21세기 신(新)문명표준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한국의 복합파는 새 암호를 풀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5중 그물망 짜기’와 ‘3중 복합망 쌓기’ 연구에 주력해 왔다.

세계 4대 최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전통적 자원력만으로 무대의 중심에 서기는 어렵고 동시에 네트워크력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일본과의 전통적 그물과 중국과의 새로운 그물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개혁개방과 평화체제 구축의 공(共)진화(coevolution)를 추구하는 한반도, 지구, 사이버 공간, 국내의 5중 네트워크 짜기가 중요하다. 동시에 부국강병의 단층무대 대신에 안보·번영·환경·문화의 중심무대, 지식의 기층무대, 통치의 상층무대를 다보탑처럼 아름답게 쌓아야 한다. 21세기의 신세대가 이런 암호 풀기에 성공하면 한국은 지난 두세기와는 달리 새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세계 미술의巨匠에게 듣는다

中 현대미술 작가 위예민첸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위예민첸 재공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 위예민첸의 ‘웃음 시리즈’ 중 작품 〈기억〉.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아픔과 불안을 함께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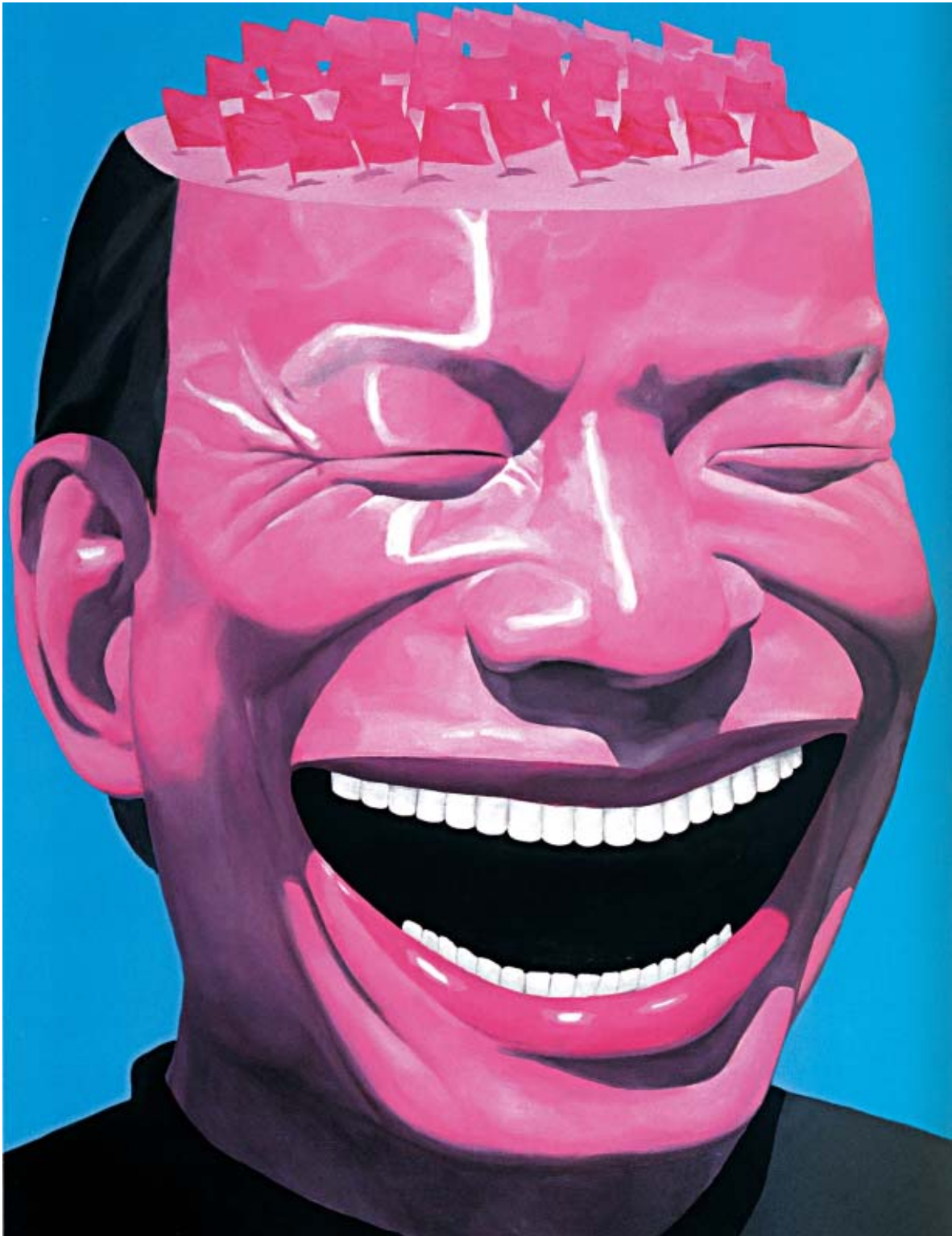
지난 27일 베이징시 동쪽에 위치한 송창 예술촌, 회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나타났고, 갈색 바지에 검은색 중국 전통상의를 입은 위예민첸(岳敏君·48)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위예민첸은 ‘시니컬 리얼리스트(cynical realist)’로 분류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이다. 그는 커다란 얼굴에 불그스레한 피부,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놓고 크게 웃는 인물을 담은 ‘웃음 시리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가 그린 인물은 크게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허하고 냉소적인 웃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배반하는 현실을 비웃고, 폭력적인 현실에 눈감는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또 그의 작품 〈처형〉은 2007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590만달러에 팔려 세계 미술계를 놀라게 했다.

위예민첸은 고교 졸업 후 텐진석유

공장의 전기공으로 평범하게 살았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림에 취미를 붙여온 그는 다시 허베이사범대 미술학과에 들어가 미술을 공부했다. 자아를 복제한 듯한 ‘웃음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작가는 ‘웃음 시리즈’에 대해 “끓임없는 웃음을 통해 문화혁명 시기에 겪었던 고통과 개혁개방에 대한 회열을 담았다”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 좋아하는 것 같다”며 “미술뿐 아니라 중국 영화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혁명은 중국 사회나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중국 예술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사회나 현실에 관심이 많아 추상보다 현실에 가까이 가는 작품을 많이



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가는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치 팝 아트’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마 눈뜨고 못 볼 현실 웃지 않고는 못 살 세상
예술로 사회는 못 바뀌도
사람들 생각 바꿀순 있어
‘정치 팝 아트’ 아직 유효”

중국 현대미술에서 마오쩌둥이 지시한 문화혁명과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문화혁명은 종교가 없었던 중국인들

에게 종교와 같았고, 마오쩌둥은 그들에게 신격화된 우상이었다. 마오쩌둥의 죽음으로 문화혁명이 막을 내리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시작됐지만 서구 물질주의는 혼란을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미술계는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려는 신사조 운동이 본격화됐고, 위예민첸 같은 작가들은 베이징의 예술촌인 위엔밍위엔에 모여들어 예술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국내외 언론과 외국인에게 노출되면서 세계적인 무대에 알려지게 됐다. 중국의 ‘정치 팝 아트’를 주도한 왕광이는 정치선전화(宣傳畫)와 코카콜라 같은 서구 상업광고를 중첩시켜 물질주의와 이념을 동시에 비판했다. 위예민첸은 “예술이 사회를 변혁하는 것은 불가능할 몰라도 사람들에게 생각을 던져주고 생각하게 만든다”며 “예술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예민첸은 “초기에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인체 표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러나 크게 보면 중국의 전통과 사회주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서양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위예민첸의 응접실 벽에는 그의 ‘미궁 시리즈’ 작품이 걸려 있었다. 작가는 ‘웃음 시리즈’ 이후 ‘장면 시리즈’ ‘미궁(迷宮) 시리즈’를 보이고 있는데, ‘미궁 시리즈’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위예민첸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작가의 작품은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면서 “나 스스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겪는 혼란스러움을 2년 전부터 ‘미궁 시리즈’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글·사진 손정미 기자 jmsn@chosun.com

캥거루와 요가를… 자연과 인간의 기묘한 동거

패트리샤 피치니니展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리안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패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전(展)은 호주에서 활동하는 작가 피치니니의 작품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첫 개인전이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치니니는 1970년대 호주로 이주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호주 대표로 참가했고, 2004년 미국에서 가진 《Nature's little helpers(자연의 작은 조력자)》전을 통해 주목받는 작가

로 부상했다.

피치니니의 조각 작품을 처음 접한 사람은 징크스러움이나 두려움을 느껴 거부감을 갖기 쉽다. 작품 〈한 팔의 힘〉은 어린이의 다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다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거친 털이 나있다. 작품 〈오퍼링(The Offering)〉은 어린 아기가 동물 털이 잔뜩 나있고 돼지고 형상을 하고 있다. 인간이 생산해 낸 지독한 공해나 유전공학이 만들어낸 이종(異種) 같아서 눈을 돌려버리고 싶다. 앞으로 유전공학이 잘못 진행될 경우 맞게 될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작품 〈포옹〉은 이웃집 주부의 얼굴 위로 지구 상에 없는 생물이 숨 막힐 듯 달라붙어 있

다. 실리콘으로 제작한 극사실 조각이 보는 사람을 몹시 불편하고 숨 막히게 한다.

피치니니의 작품은 인간이 빚은 발전이나 기술에 대한 경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조각을 찬찬히 뜯어보면 미워할 수 없는 순진한 농담과 귀여움을 발견해 연민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결국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전시에 나온 작품 〈패널 워크〉는 자동차의 창문 버튼 같은 부분을 이미지로 확대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기계인 자동차를 심미적으로 보 여줌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이



패트리샤 피치니니의 〈오퍼링〉.

리안갤러리

야기하고 있다. 어린이가 양탄자 위에서 요가 자세를 하고 있는 작품처럼 자연과 기계를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기보다 공존해야 한다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전시는 대구에서 4월 17일까지 열리지만, 〈한 팔의 힘〉 등 일부 작품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안갤러리 쇼룸에서 볼 수 있다. 대구 전시장 입장료 3000원. (053)424-2203

손정미 기자

미술소식

■일산미술인회가 30일까지 고양 어울림 미술관에서 정기전 《메이드 인 고양》전(展)을 연다. 고양의 보물과 사적, 역사문화재를 주로 다룬 작품이 많다. 허영·윤익한<작품 사진>·이의현·김형규씨 등 일산미술인회 소속 작가 40여명이 참여했다. (031)960-9730



■임명옥씨의 개인전 《A Sacred Landscape》전이 4월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갤러리로얄에서 열린다. 전시 제목은 ‘빛으로 정화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유리·철판을 이용해 빛의 미학을 보여준다. (02)514-1248

‘화랑미술제’ 아쉬운 폐막

관람객 작년보다 다소 줄어
특별전 ‘아트 인 부산’엔 호응



‘2010 화랑미술제’ 전시장.

최광림씨 제공

한국화랑협회가 지난 24일부터 부산광역시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최한 ‘2010 화랑미술제’가 29일 막을 내렸다. 올해 화랑미술제에는 작년 80개보다 많은 84개 화랑이 참가해 2만152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고 320여점의 작품이 판매됐다. 화랑협회에는 “화랑미술제 주말 관람객 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관람객 수는 작년 2만4813명에 비해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참가한 화랑들은 처음 작품을 구입하는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대형보다 소품이나 중저가 위주의 작

품을 많이 내놓았다. 국내 작가로는 이우환을 비롯해 김창영·송수남·배병우·사석원·홍경택 등의 작품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고, 해외 작가로는 폴리나 오피·앤디 워홀·데미언 허스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갤러리의 작품이 판매됐다. 화랑협회에는 “화랑미술제 주말 관람객 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관람객 수는 작년 2만4813명에 비해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참가한 화랑들은 처음 작품을 구입하는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대형보다 소품이나 중저가 위주의 작

품을 많이 내놓았다. 국내 작가로는 이우환을 비롯해 김창영·송수남·배병우·사석원·홍경택 등의 작품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고, 해외 작가로는 폴리나 오피·앤디 워홀·데미언 허스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갤러리의 작품이 판매됐다. 화랑협회에는 “화랑미술제 주말 관람객 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관람객 수는 작년 2만4813명에 비해 줄었다”고 말했다.

페어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미선 화랑협회장은 “올해는 경제상황과 날씨, 대형사건 등이 겹쳐 입장객 수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러나 부산작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특별전 ‘아트 인 부산’의 반응은 좋았다”고 말했다. 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장은 “주말 관람객이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많은 컬렉터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화랑미술제에서 열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손정미 기자